2만평 장미정원 화려한 꽃 축제

'임실N장미축제' 첫 개최… 28~3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서 진행

임실군이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2만여평 대지에 환상적으로 피어난 장미꽃 향연이 될 '2026 임실N장미축제'를 처음 개최한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에서 이번 축제는 임실군이 처음 선보이는 장미를 테마로 한 축제로, 만개한 장미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풍경과 치즈테마파크의 이국적인 경관이 어우러져 올봄 가장 화려한 꽃 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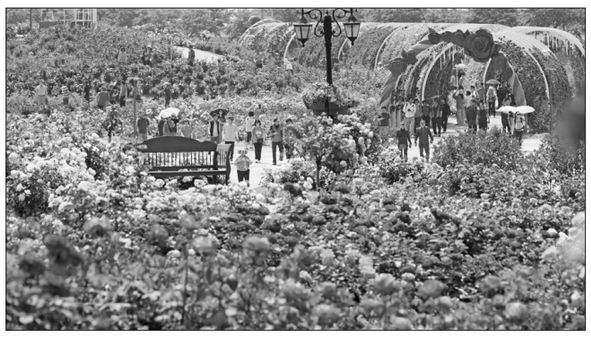
축제의 주 무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약 6만 5천㎡ 규모에총 150여종, 2만 2천여 주의 유럽형 장미가 식재된 대규모 정원이다.

축제 기간인 5월말이면 형형색색의 수만 송이의 장미가 절정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하고 발길 닿는 곳마다 압도적인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사계절 장미원과 유럽형 정원이 어우러진 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마치 유럽의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어디서 찍어도 작품이 되는 환상적인 포토존을 선사한다.

이에 더해 수국과 다양한 초화류를 추가 식재하고 감성 조형물과 포토존이 더해져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축제장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장미를 테마로 한 거리 퍼레이드인 '로즈 퍼레이드',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로즈 스트릿 아트쇼' 가족과 연인이 함께 사랑을 전하는 '임실N프로포즈 데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축제 전반에 활기를 더한다.



임실군이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2만여평 대지에 환상적으로 피어난 장미꽃 향연이 될 '2026 임실N장미축제'를 처음 개최한다.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시크릿쥬쥬·또봇 팝업스토어'와 체험형 공간인 '장미빌리지'도 운영돼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꾸며진다.

화려한 공연무대 라인업 또한 기대를 모은다. 축제 이튿날인 29일 개막 공연에는 이찬원, 손태진, 전유진, 김다현, 신유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30일에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와 교향악단이 함께하는 '로즈 음악회'가 장미꽃과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여기에 백만송이 장미의 가수 심수봉을 비롯한 범진, 펀치 등이 출연하는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까지 더해져 축제의 품격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미식 콘텐츠 역시 풍성하다. 한우명품관과 향토음식관, 치즈페어장 등 기존 인기먹거리에 더해 장미 아이스크림과 장미빵 등 축제 한정메뉴가 마련되며, '임실N비어괙토리'에서는 장미 콘셉트 수제 맥주를 선보여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기본소득' 지역 소비로 잇는다

순창군, 9일 '상생이음 연대장터' 개최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군은 오는 9일 풍산면 산울림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상생이음 연대장터'를 통해 기본소득이 실제 지역경제 안에서 어떻게 순환하고 주민 삶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풍산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장터는 지역 농가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33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형 생활장터로 운영된다.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되었다면, 이번 연대장터는 기본소득의 지역 내 소비 순환과 공동체 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장터에서는 딸기와 토마토, 취나물, 고사리 등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돼지고기와 떡볶이, 수제요거트 등 다양한 먹거리와 고추장·된장·딸기잼 같은 가공식품이 판매된다.

또한, 단순 판매 중심 행사 이외에 주민 참여와 교류에 초점을 맞춘 점도 특징이다. 어반스케치와 민화보자기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오감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버스킹 공연이 함께 운영되며, 참여 농가와 단체들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경품 이벤트도 더해질 예정이다.

군은 이번 장터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가 곧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고, 다시 공동체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장터를 주관하는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은 교통약자의 장터 참여를 위한 수요맞춤형 순회버스를 운영한다.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풍산면 산울림센터 앞에서 열리며 군민 누구나 기본소득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장배 유소년 드론 챌린지 대회 열려

남원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춘향제 행사장 내 '사랑의 광장'에서 남원시장배 유소년 드론 챌린지 대회를 개최했다.

제96회 춘향제 및 어린이날을 맞아 기획된 이번 대회는 남원시가 추진해 온 찾아가는 드론 교실과 연계한 실전 대회로, 관내 10여 개 초등학교에서 9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비행 실력을 겨뤘다.

특히 대회는 안전성이 검증된 에어바운스 경기장에서 LED 게이트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이번 대회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입문 교육(찾아가는 드론교실)-현장 체험-실전 대회(리그)'로 이어지는 남원시만의 유소년 드론 스포츠 선순환 체계를 실현했다는 큰 의미를 지니며, 우수한 조종 능력을 선보인 20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키즈 나이트 페스타' 성료

'어린이 야간 축제' 공연·체험·빛놀이 등 추억 선사

남원시가 춘향제에 준비한 어린이 야간 축제 남원 키즈 나이트 페스타 '빛으로 노는 밤'이 지난 5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5월 1일 노동절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5일간 남원 피오리움과 달빛정원 일원에서 열렸으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공연, 체험, 빛놀이, 야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봄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행사장에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가족 단위 방문객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아이들은 낮 시간대에는 공연과 캐릭터 체험을 즐기고, 해가 진 뒤에는 블랙라이트와 야광 소품, 레이저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축제를 만끽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빛의 주인공이 되는 체험형 빛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 아이들은 인터랙티브 미디어 조형물을 직접 쌓고 움직이며 빛의 변화를 체험하고, 블랙라이트 조명 아래에서는 형광펜과 마카로 대형 백월과 낙서 큐브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됐다.

또한 글로우스틱과 야광 슈링클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체험도 이어져, 아이들은 직접 만든 안경, 모자, 팔찌 등을 착용한 채 봄밤의 축제를 즐겼다.

낮에는 남원시 캐릭터 향이·몽이를 활용한 페이스페인팅을 비롯해 버블 퍼포먼스, 마술 공연, 솜사탕·풍선 퍼포먼스 등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진행, 저녁에는 레이저 조명과 신나는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이 더해지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고, 행사장 곳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5월 5일에는 광한루원과 요천변 일원에서는 거리공연, 체험행사, 먹거리, 퍼레이드, 참여형 이벤트 등이 펼쳐지며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계속됐다. 특히 춘향전 속 인물을 유쾌하게 풀어낸 방자챌린지를 비롯해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장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춘향제 행사장서 곤충 체험부스 운영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에서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단백질, 남원 황금고소애'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체험 부스는 단순히 곤충을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식용 곤충인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가 지닌 영양학적 우수성과 친환경적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소애는 고단백 영양소와 저탄소 생산 방식을 갖춰 미래 식량 및 바이오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손꼽히며 시제품 시식 행사가 이루어져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시식 행사에는 식품 전문 유명 업체인 '죽이야기'와 원광대 의과대학(김민선 학장) 및 식품생명공학과(조인희 교수)가 동참해 안전하면서도 맛있는 고소애 제품을 선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 조기 추진

임실군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2026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올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가가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 6개월분에 대한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오는 5월 15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지원금도 기존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유종별 지원단가는 리터당 경유 20원, 휘발유 19원, 등유 26, 중유 53원, LPG(차량) 28원, LPG(난방) 54원, 부생연료(1,2호) 52원이며,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최대 1만리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순창신협,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운영 협약

순창군은 군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순창신용협동조합 내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 6일 순창군청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김종국 순창신협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중앙로 인근 주민들이 신협 방문 시 각종 민원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발급기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협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5월 6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신협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특히 이번 발급기에는 △장애인용 키패드 △점자 스티커 △셀렉터 가이드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강화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순창=이양원 기자